

한중 ‘얼굴’의 의미확장과 개념화 양상

이 선 희*

<目次>

- | | |
|-------------------|-----------------------|
| I. 시작하는 말 | III. ‘얼굴’의 개념화 양상 |
| II. ‘얼굴’의 의미확장 양상 | 1. 의미확장을 통해 본 개념화 |
| 1. ‘臉, 面’의 의미확장 | 2. 서술어와 수식어를 통해 본 개념화 |
| 2. ‘얼굴, 낯’의 의미확장 | IV. 맺는 말 |

I. 시작하는 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심봉석 작사/ 신귀복 작곡 <얼굴>)’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이다.
근데 동그라미를 그리려다 왜 하필이면 얼굴을 그렸을까? 그리워하는 사
람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릴 때 왜 얼굴일까?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왜 얼굴
이 잘 나온 사진을 봐야 그 사람을 봤다고 생각할까? 몸통이나 팔, 다리,
심지어 손가락 지문이 자세히 나온 사진을 보았어도 그 사람을 봤다고 생
각하지는 않는다. 니콜라스 케이지와 존 트라볼타가 주연한 영화 ‘페이스
오프(Face Off)’에서도 얼굴만 바뀌었을 뿐 목소리, 신체는 그대로인데도
가족들은 남편과 아빠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는 모두 우리가 얼굴이 곧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얼
굴’은 신체의 일부이면서 신체 전체, 즉 사람을 가리킨다.

*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과 조교수

‘얼굴’은 신체로서의 의미 외에도 미학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은 그의 글 <얼굴의 미학적 의미 Die Asthetische Bedeutung des Gesichts:1901년>에서 인간의 얼굴이 조형 예술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며, 인간 신체 중에서 얼굴이 내적 통일성을 보여주는 가장 외적인 척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증거로 입을 삐죽거리거나 코를 실룩거리리는 것, 눈을 깜빡이거나 이마의 주름살을 만드는 등 얼굴의 한 요소만 변해도 얼굴의 전체 성격과 표현이 달라지는 점을 제시했다. 또 아주 작은 부분이 흉하게 됨으로써 쉽게 그 전체가 미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인간 신체의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얼굴이 지닌 통일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내의 그 어떤 형상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얼굴만큼 형태와 모습에 있어서 수많은 다양성을 감성의 무조건적 통일성 속에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학적으로 이처럼 의미심장한 ‘얼굴’이기에 우리는 언어학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말 ‘얼굴’은 ‘영혼’이라는 뜻의 ‘얼’과 ‘통로’의 의미인 ‘굴’이 합쳐진 말이라고 한다. 오관의 밑바탕이 되는 얼굴은 정신과 감정, 심리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인 셈이다. 그래서 ‘얼굴’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을까싶다. 하지만 얼굴은 또 ‘체면’과 ‘존엄’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말 속담에 ‘얼굴을 더럽히다’는 어휘적 의미보다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다’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중국어에도 ‘사람을 때리되 얼굴은 때리지 말고, 말을 하되 단점을 들추지 말라(打人不打臉, 說話不揭短)’는 말이 있다. 이는 얼굴은 신체의 외관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자존심과 체면, 존엄의 상징이므로 사람을 때릴 때 얼굴만은 피하라는 뜻일 것이다. 이처럼 얼굴은 본래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본고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얼굴’의 의미를 가진 어휘의 의미확장과 이를 통해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대상은 중국어 ‘臉’과 ‘面’, 한국어 ‘얼굴’과 ‘낯’으로

국한시키도록 하며, 개념화 양상은 ‘얼굴’ 어휘 외에 이와 함께 쓰이는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얼굴’과 같은 신체어에 관한 연구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주제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중국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고, 특히 한중비교연구는 그 예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신체어 의미확장과 개념화에 관한 연구로 두 언어의 어휘체계를 비교해볼 수 있고, 또 문자적, 은유적 의미분포와 용법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비교해본다는 것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인지구조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II. ‘얼굴’의 의미확장 양상

1. ‘臉, 面’의 의미확장

현대중국어에서 ‘얼굴’을 뜻하는 대표적인 어휘는 ‘臉’과 ‘面’이다. ‘臉’은 ‘얼굴, 즉 머리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이마에서 턱까지의 부위를 말한다. ‘面’ 역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나 의미확장이 많이 일어나 의미항목이 상당히 많다. 본 장에서는 중국어 ‘臉/面’의 의미확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臉/面’은 그 자체가 ‘얼굴’을 뜻하기도 하고, ‘嘴臉, 頭臉, 面孔’에서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와 함께 얼굴을 나타내기도 한다. ‘臉/面’은 이와 관련한 단어, 성어, 관용어, 험후어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 의미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중국인들에게 ‘얼굴’이 갖는 의미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臉/面’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서 ‘臉, 面’이 갖는 의미항목을 살펴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古漢語實用詞典》(中華書局, 2004)과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2)에서 두 단어의 의미항목을 살펴보자.

《古漢語實用詞典》의 해석

臉：① <名>兩頰。② <名>面部。③ <名>面子；情面。

面：① <名>顏面，臉。指額以下五官所在的部分。② <動>見面。③ <名>表面。④ <名>方面。⑤ <名>前面。⑥ <動>面向。⑦ <名>当面。⑧ <量>用于某些器物。

《現代漢語詞典》의 해석

臉：① 頭的前部，從額到下巴。② (～儿)某些物体的前部：門～儿/鞋～儿。

③ 情面；面子：丟～/不要～。④ (～儿)臉上的表情：笑～儿/把～儿一變。

面：① 頭的前部；臉：～孔。② 向着；朝着：背山面水。③ (～儿)物体的表面，有時特指某些物体的上部的一層：水～/地～/圓桌～儿。④ 当面：～談/～洽/～交。⑤ (～儿)東西露在外面的那一層或紡織品的正面：鞋～儿/這塊布做里儿，那塊布做～儿。⑥ 几何學上指一條線移動所構成的圖形，有長有寬，沒有厚。⑦ 部位或方面：正～/反～/片～/全～/多～手。⑧ 方位詞后綴：上～/前～/外～。⑨ 量詞。a) 用于扁平的物件：一～鏡子。b) 用于會見的次數：見過一～。

고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에서 ‘臉’과 ‘面’의 기본의미는 모두 ‘얼굴’임을 알 수 있다. 의미항목을 보면 ‘面’이 ‘臉’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는 ‘面’의 의미확장이 더 많이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통사적으로는 ‘臉’이 주로 문장에서 명사, 명사수식어로 쓰이는 데 반해, ‘面’은 명사, 명사수식어 외에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접미사나 양사, 부사로도 쓰인다. 의미확장과 다양한 품사로 사용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문법화’ 정도가 높음을 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이라면 중국어에서 ‘얼굴’이 ‘체면’이나 ‘존엄’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5)을 보면 ‘臉’에는 ‘情面；面子’의 의미항목이 있으나 ‘面’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중국어에서 ‘面’이라는 글자 자체에는 ‘체면’의 의미가 보편적이지 않고, 접미사를 사용한 ‘面子’라는 어휘가 체면을 뜻하는 것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¹⁾

1) 참고로 《簡明應用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0:553)에는 2번 항목으로 ‘情面, 面子’가 나와 있으며, 예로 ‘不看僧面看佛面。(스님얼굴을 안보고 부처님

이 같은 두 어휘의 의미항목의 차이는 吳淑琮(2009)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다음 표에서 현대중국어 ‘臉’과 ‘面’의 전체 20개 의미항목에서 臉은 7개, 面은 16개로 전자가 두 배 이상 많다.

연번	의 미 항 목	臉	面	용 례
1	頭的前部 ²⁾		✓	面孔, 百面書生
2	整個人		✓	老面孔, 新面孔, 露面
3	人的容貌, 相貌		✓	面若桃花
4	事物的外貌		✓	面目全非
5	面頰, 面部	✓		臉紅
6	當面		✓	面談, 面交
7	物體的表面或某些物體的上部一層		✓	桌面, 地面
8	東西露在外面的那一層或紡織品的正面		✓	鞋面, 面料
9	某些物體的前部	✓		門臉
10	部位, 方面		✓	正面, 反面, 多面手
11	面具		✓	假面舞會
12	臉部表情	✓	✓	笑臉, 把臉一變
13	面子, 情面	✓	✓	顧面子, 賞臉
14	臉面, 膽量	✓		無臉見父母
15	性格	✓	✓	鐵面無私, 拉長臉
16	戲劇中臉部的化妝造型	✓		大花臉, 臉譜
17	方位詞後綴		✓	後面, 裏面, 東面
18	物體的數量(扁平的物體)		✓	兩面鏡子, 三面紅旗
19	見面的次數		✓	見過一面
20	範圍, 程度		✓	知識面, 討論涉及的面很廣

얼굴을 본다.)’을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面’은 일차적으로 ‘얼굴’을 가리키고, 은유적으로 확대되어 ‘체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面’ 자체에는 ‘체면’이 의미항목으로 굳어지지 않았음은 2005년판 《現代漢語詞典》의 ‘面’에 ‘체면’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 ‘얼굴’을 뜻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 ‘臉’과 ‘面’이 의미항목에서 왜 이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걸까? 이 의문은 두 단어의 출현 시기를 살펴보는 것으로 쉽게 풀린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 ‘面’은 사람의 옆얼굴을 나타낸 형상으로 그 출현시기가 臉보다 훨씬 빨라서 갑골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³⁾ 반면 ‘臉’은 원래 ‘사람의 양쪽 볼’⁴⁾을 뜻하던 말로, ‘面’보다 늦은 위진 시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당송시기에 얼굴 전체를 뜻하게 되었다.⁵⁾ 즉 다시 말해 출현시기가 훨씬 빠른 ‘面’이 긴 시간동안 여러 의미항목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고, 비교적 출현시기가 늦은 ‘臉’은 집중화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추상적 의미인 ‘체면’, ‘명성’, ‘성격’ 등을 나타내는 데에 문법화 정도가 높은 ‘面’의 파생어인 ‘面子’가 전문적으로 이를 나타내는 어휘가 되었으며, ‘臉’은 그 자체로 체면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의미항목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이 단편적인 나열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들 의미항목간에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런 의미항목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여기서는 위 의미항목들을 의미확장의 각도에서 다시 정리하여 의미 상관성을 살펴보고, 의미확장의 원인으로 개념은유나 개념환유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람의 ‘얼굴’은 사물의 ‘앞부분, 정면’과 ‘표면, 외관’과 동사적 용법인 ‘향하다, 마주하다’, 더 나아가 추상적 영역인 ‘방면’으로 확대되어 개념화된다.

2) 위에서 첫 번째 의미항목인 ‘頭的前部’를 ‘面’에만 해당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보여진다. ‘臉, 面’의 기본의미인 ‘얼굴’은 두 어휘 모두에 해당될 것이다.

3) 徐山(2003)을 참조할 것.

4) 王力는 《漢語詞匯史》(596쪽)에서 ‘臉’의 의미를 ‘婦女搽胭脂的地方’으로 분이래로 학계에서 이 견해가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趙文源(2009)에 따르면 ‘臉’이 여성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사람의 양 볼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5) 程東岳(2007), 趙文源(2009)을 참조할 것.

- (1) 門臉(상가의 전면), 鞋臉/鞋面(구두의 등, 구두코), 前臉(건물, 가구)
정면, 앞부분. 面朝東(정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모두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로, 사람의 ‘얼굴’을 사물의 한 부분으로 개념화한 은유이다. ‘臉’과 달리 ‘面’은 사물의 ‘정면, 앞’이라는 의미 외에 ‘面對, 面向, 面臨, 面世’ 처럼 ‘만나다, 향하다, 마주하다’로 동사적 의미확장이 발생했다.

- (2) 面稟(만나서 말씀올리다)
面斥(만나서 하소연하다)
面授(직접 만나서 가르치다)
面談(면담하다), 面謝(직접 만나서 감사드리다), 面議(직접 만나서 의논하다)
(3) 面南坐北(북쪽에 자리 잡고 남쪽을 향하다)
面山而居(산을 향하고 거처하다)
面壁思過(벽을 마주보고 잘못을 생각하다)

(2)에서 ‘面’이 동사 앞에서 부사적 의미로 ‘마주대하고’의 의미에서 동사와 함께 어휘화되어 동사로 굳어진 예이다. (3)은 동사 용법으로 ‘향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또한 ‘面’은 ‘정면’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표면’이나 ‘외관’으로도 의미가 확장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 (4) 路面, 地面, 水面, 海面, 桌面, 脚面, 謎面, 面料, 面額, 背面

(4)의 ‘地面, 水面, 海面, 桌面’은 모두 ‘지면, 수면, 해수면, 책상의 표면’을 가리킨다. ‘脚面’은 ‘발등’을 뜻하는 말로, 눈에 보이는 발의 표면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발바닥은 ‘발밑’의 개념인 ‘脚底’가 사용된다. 이 때, 재미있는 것은 ‘脚面’과 대응하는 ‘手面’은 ‘손등’이 아닌 ‘수단, 수완,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분

고에서는 그 이유를 ‘脚面’과 ‘手面’에서 ‘面’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본다. 즉 ‘手面’의 ‘面’은 ‘표면’이 아닌 ‘방면, 분야, 영역’등의 추상적인 의미로, 手面의 의미생성 과정을 보면 ‘손’이 ‘채주, 솜씨’나 ‘능력’의 의미로 확대되고, ‘방면, 분야’의 의미인 ‘面’과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수단, 수완’의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것으로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왜 대응어 ‘손’, ‘발’과 결합하는 ‘面’이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가이다. 이는 아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과 발의 사용 용도와 인지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발은 거의 걸음을 걷는 용도로 쓰이며 누워있을 때를 빼고는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발등이고, 발바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으며, 바닥과 등이 모두 항상 보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발은 표면으로 드러난 부분이 ‘발등’으로 이 의미가 강조되었고, 손은 ‘등’과 ‘바닥’이 모두 겹으로 보이는 ‘표면’이 되므로, ‘手面’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솜씨, 채주, 능력’등의 의미가 더 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⁶⁾ 이 같은 논리는 추상적인 개념에도 적용되어 얼핏 ‘面’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수께끼의 문제(謎面)’에도 ‘面’이 사용된다. 《現代漢語詞典》에서 ‘謎面’의 해석을 보면, ‘指猜謎語時說出來或寫出來供人做猜測線索的話’이다. 이때 ‘面’도 역시 ‘표면’으로, 수수께끼 ‘표면(面)’으로 드러난 ‘문제’를 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수수께끼의 ‘답’은 ‘밑바닥(底)’에 감춰진 ‘謎底’이다. ‘面’의 ‘표면’ 의미가 더 강조된 것이 ‘一面鏡子’, ‘三面紅旗’, ‘一面鑼鼓’와 같이 평평한 표면을 가진 사물을 세는 단위이다. ‘面’의 표면이나 외관의 의미는 좀 더 추상적인 영역으로도 확대되어 ‘방면’의 의미를 가진다.

- (5) 城市的面貌 (도시의 모습), 這座公園將新臉迎春 (이 공원은 새 단장을 하고 봄을 맞이할 것이다)
 (6) 政治面目, 歷史面目, 面目全非, 面目一新
 (7) 多面手, 面面觀, 工作面

6) 참고로 ‘손바닥’은 ‘手掌’이고, ‘손등’은 ‘手背’이다.

(5)에서 '面'은 구체적인 사물의 외관에서 '도시'나 '공원'과 같은 공간적 개념의 '외관'으로 확대되었다. (6)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인 '政治'나 '歷史'와 결합하여 '입장, 모습'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7) '多面手', '工作面'은 '다방면', '업무방면'으로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에 사용되고 있다.

둘째, '얼굴'로 그 '사람' 자체를 지칭하는 경우이다. '얼굴'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다. '臉'이나 '面孔'이 '사람'을 말하고, '얼굴을 내미는 것(露面⁷), 出面)'은 사람이 나타남을 뜻한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된다.

(8) 見面, 謀面, 碰面, 會面, 晤面

(8)은 모두 '얼굴을 보다'로 '만나다, 대면하다'를 뜻하는 환유적 개념화가 된다.

셋째, '얼굴'이 완전히 추상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경우이다. '얼굴'은 '존엄, 명성, 체면, 면목' 등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나타낸다. '피부'와 '얼굴'이 합쳐진 '皮臉'와 '臉皮'은 '면목'이나 '체면'으로서의 얼굴을 말한다. 아래 林語堂의 《臉與法治》에서 '臉'의 의미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9) 國人的臉, 不但可以洗, 可以刮, 并且可以丟, 可以賞, 可以爭, 可以留, 有時好像爭臉是人生的第一要義, 甚至傾家蕩產而爲之, 也不爲過。
(중국인의 얼굴은 세수하고 수염을 깎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기도 하고 감상할 수도 있으며, 또 쟁탈하거나 남길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얼굴을 두고 싸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얼굴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9)의 '臉'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얼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씻고(洗) 수염을 깎는(刮) '臉'은 본래 의미의 얼굴이고, 잃고

7) '露臉'과 '露面'은 둘 다 문자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다'이나, 전자는 '좋은 성적이나 호평 등을 받아 체면(위신·면목)이 서다'의 뜻으로 차이가 난다.

(丟) 감상하고(賞), 쟁탈하며(爭) 남길 수 있는(留) ‘臉’은 ‘체면’을 가리키는 얼굴이다. 중국어에는 이처럼 ‘체면’을 나타내는 ‘얼굴’이 상당히 많다.

- (10) a. 顧臉, 賞臉, 作臉, 給臉, 爭臉, 有臉
 b. 愛面子, 顧面子, 撐面子, 保全面子, 臉寬面大, 要面子, 够面子, 留面子, 買面子, 給面子, 爭面子, 講面子
- (11) a. 丟臉, 掃臉, 撕臉, 沒臉, 无臉, 臉上无光, 破臉, 舍臉, 拋臉, 搶臉, 抹臉
 b. 丟面子, 沒面子, 傷面子, 不留面子

(10)은 모두 체면을 봐주거나 살리는 것이고, (11)는 모두 체면이 없거나 면목이 없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다. 그래서 ‘얼굴’을 돌아보거나(顧), 감상하고(賞), 지탱하며(撐), 사기(買) 쟁탈(爭)하기도 하고, 얼굴이 있으면(有臉) 체면을 세우는 것이 된다. 반대로 ‘얼굴’을 잃어버리거나(丟), 쓸어버리거나(掃), 찢고(撕) 깨지고(破) 던지거나(拋), 얼굴이 없으면(无臉, 沒臉) ‘체면이 없음’이 된다. 다음 ‘臉大’의 의미를 보자.

- (12) 這姑娘可真臉大, 什麼話都敢說。(이 아가씨 체면도 좋네, 무슨 말이든 다 하는군)
- (13) 你臉大, 他會听你的。(당신이 명성이 더 높으니,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들을 거예요) (程東岳2007에서 인용)

두 문장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臉大’의 의미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는데, (12)에서 ‘臉大’는 형용사로 ‘엄치없다’, ‘뻔뻔스럽다’의 의미로, 이 때 ‘臉’은 부정적 의미로 ‘체면’이나 ‘낮가죽’을 뜻한다. (13)에서 ‘臉大’는 ‘안면이 넓다’, ‘명성이 높다’의 의미로, ‘臉’은 긍정적 의미의 ‘명성, 존엄’을 뜻한다. ‘臉大’의 반대는 ‘臉小’이다.

- (14) 老臉, 翻臉, 變臉, 拉下臉, 死皮賴臉, 厚臉, 厚着老臉, 臉(面)大, 臉

(面)硬, 板臉

(15) 臉(面)薄, 臉(面)嫩, 臉(面)軟, 臉(面)小

(14)에서 '老臉'은 '노인의 얼굴'이라는 문자적 의미 외에 '철면피'의 뜻도 있다. '翻臉, 變臉'은 얼굴표정의 변화로 '태도를 바꾸다, 불쾌한 표정을 짓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拉下臉'은 '얼굴을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지음'을, '死皮賴臉'도 '뻔뻔스럽게 억지를 쓰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14)와 같이 얼굴 피부가 얇지 않고 두꺼운 것(厚臉)은 '뻔뻔스러움'의 의미를 나타내며, 얼굴이 연하지(臉軟) 않고 딱딱한 것은(臉硬) 정이나 안면에 끌리지 않는 냉정하고 차가움을 뜻한다. 반대로 (15)의 얼굴이 얇고 부드러우며 작은 것은 인정과 체면을 중시하고 뻔뻔스럽지 않음을 의미한다. '面軟'은 얼굴이 부드럽다는 표면적 의미에서 확장되어 인정과 체면을 중시해 '마음이 여리고 부드럽다'의 의미로 쓰인다.

넷째, '얼굴'이 추상적 영역으로 확장된 경우는 '체면'외에도 '성격, 기분, 감정' 등의 내면적, 심리적 특성을 표현하기도 한다. 가령 '臉急'은 화를 잘 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 '撕破臉'이나 '抓破臉' 등은 모두 '감정이 폭발'하여 '불화가 표면화되다'의 의미로 좋지 않은 기분을 나타내면서 '화'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얼굴'을 사용해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자.

(16) 愁眉苦臉 (걱정과 고뇌에 쌓인 표정. 우거지상)

面紅耳赤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지다. 조급하거나 화나거나 부끄럽거나 흥분해서 얼굴이 온통 새빨개진 모양)

笑容滿面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臉色陰沉 (얼굴색이 어둡고 침울하다)

急赤白臉 (마음이 조급하여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다)

面不改色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다. 위기상황에서도 태연자약하다)

哭喪着臉 (기분이 언짢아서 얼굴을 찌푸리다)

繃着臉 (안색이 굳어지다. 정색하다)

(16)은 얼굴의 변화를 통해 ‘기쁨, 슬픔, 흥분, 분노, 초조’ 등과 같은 감정들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얼굴’은 또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鐵面’은 철과 같은 ‘검은색 얼굴’의 뜻으로 중국어에서 검은 얼굴은 강직하고 사심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鐵面无私’는 ‘인정에 구애됨이 없이 공평무사(公平無私)함’을 말한다. 유명한 드라마 ‘판관포청천’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포증 판관의 얼굴색이 검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특히 얼굴의 색으로 인물의 성격을 대변하는 경우는 경극과 같은 전통극에서 두드러진다. 아래 예에서처럼 전통극에서는 등장인물의 얼굴색만 보아도 그 인물의 성격 특성을 바로 알 수가 있다.⁸⁾

- (17) 白臉奸詐 (흰 얼굴은 간사한 사람)
 紅臉忠義 (붉은 얼굴은 충신, 열사)
 黑臉剛直 (검은 얼굴은 강직한 사람)
 藍臉勇猛 (푸른 얼굴은 용맹한 사람)
 紫臉持重 (보라색 얼굴은 진중한 사람)
 黃臉凶狠 (황색 얼굴은 흉악한 사람)
 綠臉殘暴 (초록색 얼굴은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

이때 ‘臉’의 의미는 전통극에서의 얼굴분장(臉譜)이나 배역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예로 ‘勾臉’은 배우가 얼굴 분장을 하다는 뜻이다. ‘얼굴’의 색과 ‘성격’이 이처럼 분명하게 연결되는 것은 중국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얼굴’은 건강상태를 나타낸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가장 먼저 얼굴에서 표가 난다. ‘面黃肌瘦’은 ‘안색이 누렇게 몸이 수척하다’의 뜻으로 병이 들었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을 지칭하는데, 우리말의 ‘얼굴이 누렇게 뜨다’와 같은 뜻이다. ‘紅光滿面’은 붉은 빛이 얼굴에 가득

8) 경극에서 등장인물의 분장과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차미경(2004)에서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한 의미, 즉 '혈색이 좋다'로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 (18) 可我要說的大表哥住在鄉下，是個農民，是一個消瘦的黃臉漢子，粗通醫道的人會將他看成肝膽病患者。(내가 말하려는 큰 사촌형은 농촌에 사는 농민인데, 수척하고 누런 얼굴의 남자로, 의술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간이나 담이 아픈 환자로 본다)
- (19) 臉白得沒有一絲血色。(얼굴이 하얗서 혈색 하나 없다)
- (20) 醫生的臉白得象一張紙。(그는 얼굴이 백짓장처럼 하얗다)

(18)'黃臉'은 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누렇게 뜬 모습을 말하고, (19-20)'臉白'는 핏기없이 하얀 얼굴로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상으로 중국어에서 '臉, 面'의 여러 의미항목들, 즉 '얼굴'에서 사물의 '정면, 표면, 외관', '사람', '체면, 안면, 존엄', '감정, 성격, 기분', '건강상태' 등의 경우를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로써 사람의 신체일부를 가리키는 원래의 의미에서 사물의 한 부분이나,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나아가 추상적인 영역으로까지 의미가 확장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얼굴, 낯'의 의미확장

한국어에서는 얼굴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얼굴'과 순수 한국어인 '낯'이다. 그 밖에 한자어 '면목(面目)', '안면(顔面)'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얼굴'과 '낯'으로 논의의 범위를 국한시키기로 한다.⁹⁾ 한국어의 '얼굴'과 '낯'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자세히 이루어져 있

9) 김해연(2009)의 최근 연구에서 한국어 코퍼스에 나타난 '얼굴'관련 어휘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얼굴'(5,564) '낯'(108) '안면'(46) '면목'(24)(괄호 안은 용례 수) 모두 머리의 앞부분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의미영역에서 '얼굴'은 은유, 환유적 의

는 실정이어서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 예들을 보충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 ‘얼굴’과 ‘낯’은 모두 ‘머리의 앞부분’이라는 어휘적 의미 외에도, ‘모습’, ‘체면’, ‘표정’등의 의미로 은유적, 환유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얼굴’과 ‘낯’은 중세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발전하면서 의미변화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광호(2006)에 의하면 ‘얼굴’과 ‘낯’은 모두 의미축소가 일어났다. ‘얼굴’은 원래 광범위한 ‘모습’의 의미에서 사람의 신체부위로, ‘낯’은 신체와 관련한 ‘모습’의 의미에서 ‘얼굴모습’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의미축소가 일어난 후로 두 어휘의 유의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현재 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말에서 ‘얼굴’과 ‘낯’의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풀이를 점검해보자.

얼굴

- ①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안면04(顔面)「1」·용안01(容顔).
예) 얼굴을 씻다
- ② 머리 앞면의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 예) 얼굴을 익히다/ 얼굴이 예쁘다
- ③ 주위에 잘 알려져서 얻은 평판이나 명예. 또는 체면. 예) 얼굴을 세우다
- ④ 어떤 심리 상태가 나타난 형색(形色). 예) 기쁨에 충만한 얼굴/ 생각에 깊이 잠긴 얼굴
- ⑤ 어떤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 예) 문단의 새 얼굴
- ⑥ 어떤 사물의 진면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 표상. 예) 돌·바람·여자는 제주도의 얼굴이다

낯

- ①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

미 확장을 거쳐 그 의미범위가 비교적 넓지만, 나머지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관계의 지위, 친분, 체면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남을 대할 만한 체면. ㄴ면목.

한국어에서 '얼굴'의 의미항목이 '낮'보다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순수 우리말인 '낮'은 '얼굴'과 '체면'의 의미로만 주로 사용되어 '얼굴'에 비해 제한적이다. 위에서 '얼굴'의 ①③의 의미인 경우에만 '낮'과 교체가 가능해보인다. 이러한 사전 정의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실제로는 얼굴의 ② 의미도 '낮'으로 교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 이광호(2006)의 지적대로 '얼굴'의 ①과 ②, ⑤와 ⑥도 의미구분이 매우 모호하다. 그래서 김해연(2009)은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 코퍼스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얼굴'과 '낮'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그 예를 들고 있다.

'얼굴'

- (i) 신체의 일부분, 즉 머리의 앞부분을 나타내는 유형적 실체 (ii) 내면의 정서, 심리상태의 반영체 (iii) 사람전체를 나타내는 환유적 표현 (iv) 비유정체의 일부를 가리키는 환유적, 은유적 표현.
- (21) 희고 가름한 얼굴에 오뚝한 콧날.
- (22) 2회 초 무사 2루에서 조금은 굳은 얼굴로 첫 타석에 들어섰다.
- (23) 이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이 드문드문 섞여 있었다.
- (24) 비가 어느새 그쳐 있었다. 반짝 얼굴을 내민 햇님은 윈크하듯...(김해연 2009)

'낮'

- (i) 인체에서 두부의 전면 부분 (ii) 남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규정지어지는 위치 또는 지위적인 면목이나 체면.
- (25) 그는 어제 저녁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낮이 길고 눈이 작은 편이었다.
- (26) “나를 용서하게, 자네 볼 낮이 없네.”(김해연 2009)

(21)의 '얼굴'은 어휘적 의미로서의 얼굴이지만, (22)에서는 긴장되고 무거운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중국어 '臉'이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용법에 해당된다. 우리말에도 얼굴이 감정을 나타내는 예는 상당히 많은데¹⁰⁾, 이는 언어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3)에서는 ‘얼굴’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부분이 전체를 가리키는 환유이며, (24)에서는 ‘햇님’이라는 사물을 의인화한 것으로 태양의 바라보이는 ‘앞쪽’을 ‘얼굴’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앞 장에서 중국어 ‘臉 / 面’의 의미항목 가운데 사물의 ‘정면’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5) ‘낮’은 문자 그대로 ‘머리의 앞부분’으로, ‘얼굴’과 바꾸어 쓸 수 있지만, (26)에서는 ‘면목’이나 ‘체면’으로 의미확장이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낮’은 특정서술어와 결합하여 ‘불 낮이 없다’, ‘낮이 설다’, ‘낮익다’, ‘낮간지럽다’, ‘낮 뜨겁다’, ‘낮모르다’처럼 속어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점에서 ‘얼굴’과 차이가 난다. 또 ‘낮’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낮 짝’이 있는데, 주로 ‘체면’이나 ‘염치’가 없는 경우를 더욱 강조하여 말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관용구인 ‘낮 짝이 소가죽보다 더 두껍다’는 ‘낮이 두껍다’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부끄러움이나 염치가 전혀 없음’을 뜻하고, ‘벼룩도 낮 짝이 있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작은 벼룩조차 체면이 있는데, 사람이 체면이 없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추상적 의미영역으로의 확장은 ‘얼굴’보다 ‘낮’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이를 이광호(2006)는 ‘얼굴’로 그 의미를 대체할 수 없는 ‘낮’인 경우에는 대체로 은유적 표현이 이미 굳어진 관용표현, 즉 죽은 은유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얼굴’의 의미 변화(즉 의미축소) 이후부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다양한 추상적 영역으로까지 의미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낮’의 의미는 15세기 언어표현이 은유적 상황을 거치면서 추상적인 관용어로 형성되었다. ‘낮이 간지럽다’와 ‘얼굴 간지럽다’, ‘얼굴 뜨겁다’와 ‘낮뜨겁다’에서 ‘낮’이 쓰이면 관용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김해연(2009)의 ‘얼굴’의 의미와 사전의 의

10) 임지룡(2006)을 보면, “신체부위별 감정의 관습표현(신체외부)”에서 ‘얼굴/낮’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미항목을 비교해보면 '체면' 항목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를 생각해 보자.

- (27)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 (28)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번만 용서해주게.
- (29) 얼굴을 더럽혀도 유분수지.
- (30) 네 얼굴을 깎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27)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에서 '얼굴을 들다'는 어휘적 의미에서 확장되어 '남을 뒤통이 대하다'의 뜻이다. 이 때 '얼굴'은 '평판, 명예 체면'을 뜻한다. '얼굴을 세우다/보다/더럽히다/깎다'나 '얼굴에 똥칠/먹칠을 하다', '얼굴에 철판을 깔다', '얼굴이 두껍다'등도 모두 유사한 용법의 표현들이다.

이 밖에 사전의 의미항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굴'이 건강상태를 뜻하는 예는 한국어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31)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른다.
- (32) 얼굴은 깡마른데다가 누렇게 떠 있다.
- (33) 연일 계속되는 야근으로 얼굴이 까칠하고 푸석했다.
- (34) 조그만 흰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두 눈은 썩한 게 물골이 말이 아니었다.

(31) '얼굴에 기름이 흐르다'는 건강상태가 좋음, (32) '얼굴이 누렇게 뜨다'는 아픈 기색을 나타낸다. (33)(34)의 '얼굴이 까칠하다', '부은 얼굴'도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건강상태를 나타내는데 '낮'은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¹¹⁾

11) 실제로 21세기 세종기획의 우리말 말뭉치를 검색해보면,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데에 '얼굴'의 예는 찾을 수 있었지만, '낮'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낮'이 주로 특정서술어와 결합하여 숙어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위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배도용(2003)은 우리말 ‘얼굴’이 ‘화장(化粧)’, ‘허물이나 흉’, ‘눈치’의 주변의미도 나타낸다고 하였다.

- (35) 식사 후에 여사원들은 얼굴을 고치러 화장실에 간다.
 (36) 제 얼굴은 제가 못 본다.
 (37) 찻집 출입 삼 년에 남의 얼굴 볼 줄만 안다. (배도용 2003)

(35)에서 ‘얼굴’은 ‘화장’을 뜻한다. 이는 얼굴로 얼굴에 바른 화장, 분장 등을 지칭하기 때문에 ‘환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어로는 ‘修臉’이라 하지 않고 ‘補妝’으로 표현한다. (36)에서는 ‘허물이나 흉’, (37)에서는 ‘눈치’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는 용례가 많지 않고 사용 빈도 또한 높지 않아 은유적 용법에 의해 보편적으로 굳어진 ‘얼굴’의 의미확장 이라기보다 개별적이고 임시적인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 ‘얼굴’과 ‘낯’의 의미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얼굴’은 ‘머리 앞부분’이라는 본래의미에서 ‘개별 사람, 사물의 앞면, 모습, 표정, 감정, 평판이나 체면, 화장, 허물이나 흉, 눈치’등의 다양한 의미로 확장이 일어났다. 반면 ‘낯’은 ‘머리의 앞부분’을 뜻하다가 ‘평판, 명예, 체면’이라는 비교적 제한된 추상영역으로 의미확장이 일어났다. 즉 단순한 은유적 의미확장은 ‘얼굴’이 더 많이 사용되었지만, 더 추상적이고 의미를 유추하기가 어려운 불투명한 관용어를 형성하는 의미확장은 ‘낯’이 적극적임을 확인하였다.¹²⁾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의미확장은 은유적, 환유적 개념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12) 이광호(2006)을 참고할 것.

Ⅲ. '얼굴'의 개념화 양상

1. 의미확장을 통해 본 개념화

앞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얼굴'을 뜻하는 대표적인 어휘인 '臉/面'과 '얼굴/낯'의 의미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어 '臉/面'의 경우에 '머리 앞부분'이라는 본래 의미에서 '사람'전체를 지칭하는 환유적 확대와 사물이나 공간의 '앞부분, 정면', '표면, 외관'으로, 또 사회적 추상적 영역인 '존엄, 체면' 등의 은유적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에서도 본래 의미에서 '사람, 사물의 앞면, 모습, 표정, 감정, 평판이나 체면' 등의 다양한 의미로 확장이 일어났다. 앞에서 살펴본 많은 예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와 한국어 '얼굴'어휘에 존재하는 개념은유/환유가 아주 유사하며 이는 다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다.

얼굴은 사람이다.

얼굴은 사물의 정면, 표면, 외관이다.

얼굴은 존엄, 체면이다.

얼굴은 기분, 성격, 감정이다.

얼굴은 건강상태이다.

[얼굴은 사람이다]는 부분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환유에 해당하고, [얼굴은 사물의 정면, 표면, 외관이다.]와 [얼굴은 존엄, 체면이다.]는 사람을 사물과 추상적 영역에 투영하여 나타내는 은유로 볼 수 있다. [얼굴은 기분, 성격, 감정이다.]와 [얼굴은 건강상태이다]는 은유와 환유가 함께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얼굴로 추상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부분은 은유로 볼 수 있지만, 인체 일부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신체의 증상으로 감정이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생리적 환유(physiological metonymy)에 해당된다.¹³⁾

이러한 ‘얼굴’ 개념화는 많은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앞에서 살펴본 많은 예들은 중국어에도 적어도 위 다섯 가지 개념은유(환유)가 보편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유(환유)의 사용빈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얼굴’ 은유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張喜彥, 梁麗(2008)의 사용빈도 조사를 보면 ‘기분, 감정’이 절대다수인 81%를 차지한다고 하였다.¹⁴⁾ 그 다음인 ‘체면’은유로 전체 ‘얼굴’은유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어가 특히 ‘체면’ 등의 사회관계를 중시하여 ‘체면’은유가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개인의 감정, 기분을 나타내는 ‘얼굴’은유가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心情	尊嚴	健康狀況	其他	共計
138	18	11	3	170
81.18%	10.59%	6.47%	1.76%	100%
紅了臉: 48 一臉的: 15 沉著臉: 13 臉氣白了: 8 苦著臉: 7 蹦著臉: 4 其他: 42	丟臉: 3 紅過臉: 2 有臉: 2 翻臉: 2 其他: 9	黃臉: 6 其他: 5		

위의 표에서 중국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臉’의 개념적 은유는 세 가지로 매우 집중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얼굴은 표면’의 개념은유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門臉’이나 ‘鞋

13) 감정의 생리적 환유에 대해서는 임지룡(2006: 337-364)을 참조할 것.

14) 張喜彥, 梁麗(2008)은 국가언어위원회코퍼스(國家語委語料庫)에서 출현한 7,655개의 ‘臉’을 찾아,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결과 개념 은유 170개를 분석하여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얼굴이 감정(心情)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다수인 81%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존엄, 체면(尊嚴)’이 약 11%, 건강상태(健康狀況) 6%, 나머지 기타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臉'처럼 '표면'은유나 '성격'은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조사대상 코퍼스에서 용례를 찾을 수가 없어 위의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중국어에 존재하는 개념은유와 실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은유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 가지 보충할 것은 표면적으로 차이처럼 보이는 표현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동일한 개념화의 상이한 표현양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에서 얼굴이 '화장'이나 '허물'을 뜻하는 예의 경우, 중국어로 '修臉'이라 하지 않고 '補裝'이라 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로 보인다. 하지만 좀 더 높은 각도에서 보면 중국어에서 '경극' 등의 얼굴분장이나 배역을 나타낼 때 '臉'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얼굴은 화장, 분장이다]라는 동일한 개념은유가 두 언어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언어표현에서 차이가 나는데, 경극과 같이 얼굴 분장이 유난히 강조되는 문화가 없는 한국어에서는 '얼굴'로 일반적인 '화장'을 뜻하고, 중국어에서는 '특수한 분장'을 뜻하는 개념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이런 개념은유는 그 용례가 극히 제한적이고 사용빈도 또한 많지 않아 본고에서는 두 언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얼굴'은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서술어와 수식어를 통해 본 개념화

이 장에서는 '얼굴'과 자주 쓰이는 서술어와 수식어를 통해 개념화 양상을 분석해 볼 것이다.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얼굴'과 자주 쓰이는 서술어를 통해 '얼굴'의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언어 모두에서 얼굴을 그릇(공간)으로 보는 개념화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38) 布滿皺紋的臉 (주름 가득한 얼굴)

(39) 長滿雀斑的臉 (주근깨가 잔뜩 난 얼굴)

- (40) 笑容滿面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41) 一臉苦笑 (얼굴이 쓴웃음이 가득하다)
 (42) 說着滿臉笑開了花。(웃으면서 얼굴 가득히 웃음꽃이 피었다)
 (43) 孩子們臉上溢滿了對節日渴望。(아이들의 얼굴에는 명절에 대한 갈망이 넘쳤다)
 (44) 얼굴이 넓다/ 좁다.
 (45) 얼굴에 웃음꽃이 피다.
 (46)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47) 얼굴에 똥칠/먹칠을 하다.

(38)에서 (43)까지의 ‘不滿, 長滿, 滿面, 一臉, 滿臉, 溢滿’ 등의 어휘는 모두 중국어에서 ‘얼굴’을 그릇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얼굴은 또 공간을 나타내는 방위사 ‘上, 里’ 등과도 자주 결합하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여서, (44) ‘좁다, 넓다’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말할 때 쓰이며, (46) ‘~에 가득하다’ 역시 그릇은유의 예이다.

둘째, ‘얼굴’은 사물이나 도구로도 개념화된다. 그래서 아래 중국어 예를 보면 ‘얼굴’을 (48)의 ‘拾不起’ 들어올릴 수도, ‘放, 擱’ 내려놓을 수도 있다. 또 (49)의 깨뜨리거나(破) 던져버리고(拋), 잃기도(丟) 한다. (50)의 ‘打碎’의 깨뜨릴 수도, (51)에서 물건처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 (48) 拾不起臉 / 放下臉來 / 擱下臉
 (49) 丟臉 / 掃臉 / 撕臉 / 破臉 / 舍臉 / 拋臉 / 翻臉
 (50) 打碎臉 / 拉長了臉
 (51) 給臉不要臉
 (52) 얼굴을 뜯어고쳤다.
 (53) 얼굴(낮)을 (못)들다.
 (54) 낮을 내밀다/ 디밀다.
 (55) 얼굴을 깎다.

우리말에서도 (52) '뜯어고치다'나 (53) '(못)들다', (54) '내밀다', (55) '깎다'와 같은 서술어는 모두 물건에 자주 사용되는 것들로, 얼굴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두 언어에서 모두 얼굴은 '상품'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개념화하는 은유가 존재한다. 우리말에 '얼굴값'이라는 말이 있다. 주로 얼굴이 잘 생긴 사람에 대해 그에 걸맞은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값'은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물건에 매겨진 가격으로 '얼굴'에 사용한 것은 얼굴을 상품 혹은 가치있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예를 보자.

- (56) 爭臉/爭面子
- (57) 買面子
- (58) 얼굴을 팔다.
- (59) 얼굴이 팔리다.

중국어 예 (56), (57)에서의 '얼굴'은 모두 '체면'의 의미이다. (56)은 얼굴을 쟁탈하는 것(爭)은 체면을 세우는 것이 되고, (57) 얼굴을 사는 것(買)는 체면을 세우는 것이 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58)(59)처럼 '사다'가 아닌 '팔다/팔리다'가 '얼굴'과 함께 쓰여 얼굴이 널리 알려짐을 표현하고 있다. 이 서술어들은 모두 얼굴을 '상품'이나 '가치있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얼굴'은 또 '평평한 물건'으로 개념화된다.

- (60) 板着臉
- (61) 厚着臉
- (62) 一張臉
- (63) 一面鏡子
- (64) 臉厚/薄
- (65) 얼굴이 두껍다/얇다.
- (66) 얼굴이 반반하다.

(67) 얼굴에 첩판을 깔다.

(68) 얼굴이 구겨지다.

(60) '板着臉'은 얼굴을 평평한 판 모양처럼 만드는 것으로 말없이 엄숙하게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61)(64)(65)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얼굴을 두껍거나 얇다고 표현한 것은 일차적으로 얼굴을 평평한 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중국어에서는 (62) 얼굴을 세는 양사로 얇고 평평한 물건을 셀 때 사용되는 '張'을 사용하고 있으며, (63)와 같이 거울처럼 평면형의 물체를 셀 때에도 '面'이 사용된다는 사실 또한 평면은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말에서도 (66) '반반하다'는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이 고르고 반듯하다'의 뜻으로 평면의 의미를 함축한다. 그래서 (67)와 같이 '첩판'을 깔 수도, (68)의 구겨질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다섯째, '얼굴'은 '음식물'처럼 익지 않아 설기도 하고, 익기도 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69) 臉生/臉熟

(70) 面生/面熟

(71) 낯이 설다.

(72) 얼굴(낯)을 익히다/익다.

(73) 얼굴 뜯어먹고 산다.

(69-70)의 '生'과 '熟', (71-72)의 '설다'와 '익다'는 모두 얼굴을 음식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얼굴이 설면 어색하고 서먹함을 나타내고, 낯이 익으면 서로 친숙함을 나타낸다. (73) '얼굴 뜯어먹고 산다'는 관용어로 흔히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외모를 이용해 사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얼굴'은 은유적으로 뜯어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개념화된다.

이상으로 '얼굴'과 자주 쓰이는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 한국어와 중국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얼굴의 개념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얼굴은 공간(그릇)이다.
얼굴은 물건(도구)이다
얼굴은 상품(가치있는 물건)이다.
얼굴은 평평한 물건(판)이다.
얼굴은 음식물이다.

IV. 맺는 말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개념은유, 환유의 시각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얼굴' 어휘의 의미확장과 개념화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어에서는 '臉'과 '面'을, 한국어에서는 '얼굴'과 '낯'을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본고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의미확장에 관해서이다. 두 언어 모두에서 '얼굴'은 '머리의 앞부분'이라는 본래 의미에서 은유, 환유적 확장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의 의미확장 양상은 두 언어에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얼굴은 사람이다.
얼굴은 사물의 정면, 표면, 외관이다.
얼굴은 존엄, 체면이다.
얼굴은 기분, 성격, 감정이다.
얼굴은 건강상태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환유적 개념화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확장은 은유적 개념화로 볼 수 있다. 이는 의미확장의 개념에서 본 '얼굴'의 개념화 양상에 해당된다.

둘째, '얼굴'과 함께 사용되는 수식어와 서술어를 통해서 본 개념화 양상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공통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화

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얼굴은 공간(그릇)이다.

얼굴은 물건(도구)이다.

얼굴은 상품(가치있는 물건)이다.

얼굴은 평평한 물건(판)이다.

얼굴은 음식물이다.

셋째, 겉으로는 차이처럼 보이는 예들이 결국 동일한 개념화의 표현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말에서 ‘얼굴을 고치다’가 ‘화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 또 성형을 뜻하는 ‘얼굴을 깎다’를 중국어로 나타낼 때 ‘削’가 아닌 ‘整容’을 주로 사용하고, 중국어에 ‘買面子’가 있지만 우리말에는 ‘사다’가 아닌 ‘팔다’가 ‘얼굴’과 결합하고, ‘一張臉’은 ‘얼굴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얼굴 뜯어먹다’를 축어적으로 번역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어와 중국어의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 더 큰 각도에서 보면 내면에 깔린 은유기제는 결국 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표면적인 차이만을 강조하여 두 언어가 어찌어찌 다르다는 특수성을 말하기 전에 차이 뒤에 숨겨진 보편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물론 위의 개념은유 혹은 환유가 중국어와 한국어에 존재하는 ‘얼굴’개념화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두 언어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개념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중국어와 한국어가 신체은유(환유)를 통해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개념화하는 양상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신체은유를 통한 두 언어의 진정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하는 비교연구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

- 《古漢語實用詞典》，中華書局 2004.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5.
《簡明應用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0.
王力，《漢語詞匯史》，王力文集. 第十一卷，濟南：山東教育出版社，1900
~1986.
趙文源，〈關於中古漢語里的‘臉’〉，《語言研究》第29卷 第4期 2009.
徐山，〈“面”〉，《平頂山師專學報》第18卷 第6期 2003.
《古漢語實用詞典》編寫組 編. 古漢語實用詞典. 北京：中華書局. 2004.
第361頁.
張喜彥，梁麗，〈論“臉”的隱喻—基于英漢語料庫的對比研究〉，《外語教育》2008.
程東岳，〈“臉”的隱喻與轉喻—基于“臉”的漢英語料對比研究〉，《華東交通大學
學報》第24卷第3期 2007.
이광호，〈‘낯’과 ‘얼굴’의 의미 고찰〉，《語文學 第93輯》，2006.9, pp.81-108.
배도용，〈우리말 “얼굴”의 의미 확장과 개념망〉，《현대문법연구》，2003.
차미경，경극 인물분장의 문화적 의미，《중어중문학》제35집 2004, 2004.
12, pp.433-462.
김해연，〈한국어 코퍼스에 나타난 ‘얼굴’과 관련 어휘의 분석〉，《담화와
인지》제16권 3호 2009. pp.89-109.

< 中文提要 >

隱喻和轉喻普遍存在。從本質上說，隱喻和轉喻不只是一種語言現象，而是人類普遍的一種概念體系。這種概念隱喻和概念轉喻都是人類重要的認

知模式，对身体词的各种意义又是通过隐喻和转喻扩张的意义。人类自身的身体部位，作为人类最熟悉的事物之一，在构造概念和理解世界的过程中，起着重要的作用。汉语的‘脸’和‘面’和韩语的‘얼굴’和‘낯’均属身体词，都是一词多义。本文从隐喻和转喻的概念入手，通过身体词‘脸’和‘面’和韩语的‘얼굴’和‘낯’的韩中对比，对汉语的‘脸’和‘面’和韩语的‘얼굴’和‘낯’所产生的隐喻性和转喻性语义扩张与概念化情况进行分析，呈现了在概念化上的隐喻性和转喻性词语延伸过程。

本文通过对两种语言的对比分析，发现了汉语的‘脸’和‘面’、韩语的‘얼굴’和‘낯’都存在着10种共同的概念隐喻或转喻，可以归纳出10种共同的概念化类型。此外，从表面上有差异的语言现象的背后往往蕴涵着共同的认知机制，反映出人类思维的普遍性。

주제어 : 臉, 面, 얼굴, 낯, 의미확장(Meaning Extension), 개념화(Conceptualisation), 개념은유(conceptual metaphor), 개념환유(conceptual metonymy)